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2020. 4월

Vol.2

ISSN 2713-9387

모음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OFICE

I 특집기획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각국의 문화지원정책

5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II 세계는 지금 | 정책 동향

16 1. 문화예술 :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EU, 멕시코, 태국

19 2. 문화산업 : 영국,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아르헨티나

21 3. 문화재 : 폴란드, 터키

22 4. 체육 : 터키, 벨기에, 태국

23 5. 관광 : 호주, 싱가포르, 프랑스, 벨기에

III 세계는 지금 | 이슈 동향

26 1. 오스트리아가 신설한 예술문화부,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 발표

30 2. 한국의 소프트파워, 한류문화를 선두로 부상

34 3. 코로나 팬데믹 현실화되면 '세계 GDP 1조 증발'

IV 이달의 담론 | 2020년 한-러 상호교류의 해, 새로운 문화 소통을 생각하다

V What's on KCC abroad | 재외한국문화원 4월 활동계획

II

세계는 지금 정책 동향

- 1 문화예술: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EU, 멕시코, 태국
- 2 문화산업: 영국,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아르헨티나
- 3 문화재: 폴란드, 터키
- 4 체육: 터키, 벨기에, 태국
- 5 관광: 호주, 싱가포르, 프랑스, 벨기에

1. 문화예술

여성의 날 기념, 유럽 내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

프랑스

프랑스 문화예술계,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중

프랑스 문화부는 문화예술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객관적 지표와 자료구축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문화통신 분야 양성평등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또 2018년에는 <남녀평등 2018-2022 로드맵(Feuille de route Égalité 2018-2022)> 수립을 통해 ▲남녀 임금 격차 해소와 공공기관장의 여성 채용 확대, ▲문화 분야 내 성폭력 근절, ▲성 고정관념 탈피 등 양성평등을 위한 실질적 제도마련을 목표로 했다. 프랑스 문화부는 현재 설립 중인 국립프랑스음악센터가 문화예술계 내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거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130만 유로(약 17억 원)의 예산 배정을 약속했다. 이 예산은 여성 창작자와 그들의 작품을 지원하고 성차별 철폐를 위한 홍보 캠페인 진행 등에 쓰일 예정이다.

스페인

스페인 문화부 장관, 문화·체육계 내 양성평등 계획 발표

로드리게스 우리베스(Rodríguez Uribe) 문화부 장관은 2025년까지 양성평등을 목표로, '영상과 시청각 예술 기관의 50/50 액션 플랜'을 완성할 계획이라 밝혔다. 영상예술 부문에서는 여성참여 도모를 목적으로 여성 감독이 참여하는 단편 영화 등에 제작 예산의 35%를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와 시각예술 영역에서도 여성 작가의 저서와 작품이 더욱 배출될 수 있도록 문화부 예술총국에서 특별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캐나다

캐나다 정기간행물기금(CPF)¹, 현대화(Modernization) 2021-2026 계획 발표

연방정부는 저널리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캐나다 정기간행물기금의 현대화 계획을 5년(2021-2026)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광고 수입 및 유통 감소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신문 산업(유가지 및 비일간지 출판사)의 디지털화 시장 진입과 부흥을 목표로 한다. 지원의 주요내용은 발행사지원금(ATP)², 사업혁신지원금(BI)³, 공동 이니셔티브(CI)⁴이다.

2020-2021: 현재 지원 프로그램	→	2021-2026: 지원 프로그램 현대화 내용
Rewards print circulation 인쇄매체 지원		Rewards investment in editorial and journalistic content, and ability to reach readers 편집 및 취재콘텐츠와 독자층 확보를 위한 투자 지원
Focuses on print in the ATP component 발행사지원금(ATP), 인쇄매체에 집중		New ATP sub-component for digital-only periodicals in 2021-2022 2021-2022년도 디지털 정기간행물을 위한 발행사지원금(ATP)에 새로운 하위 지원 항목 신설
Focuses on small and mid-sized magazines in the BI component 사업혁신지원금(BI), 중소잡지사 집중경쟁회복력		Allows broader range of periodicals to apply to the BI component 사업혁신지원금(BI)에 더욱 확대된 종류의 정기간행물 신청 가능 (새로운 미디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광고 및 홍보 캠페인, 웹 디자인 및 개발 등)
BI component budget of \$1.5 million 사업혁신지원금(BI) 예산 150만 캐나다달러		BI component budget of \$2.5 million 사업혁신지원금(BI) 예산 250만 캐나다달러

(출처: Government of Canada, 2020.02.18.)

1 Canada Periodical Fund(CPF): 7천4백만 캐나다달러(약 6백80억 원)의 CPF는 캐나다 유가지, 비일간지, 디지털 정기 간행물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시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캐나다 독자들에게 고품질 콘텐츠를 지속 제공

2 Aid to Publishers(ATP): 유가지, 비일간지 출판사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

3 Business Innovation(BI): 자격을 갖춘 중소 인쇄 잡지, 디지털 정기 간행물 출판사에게 재정적 지원과 새로운 미디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광고 및 홍보 캠페인, 웹 디자인 및 개발,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을 포함

4 Collective Initiatives(CI): 캐나다 잡지와 비일간지 산업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단체들을 위한 기금 프로젝트

EU

브렉시트 후, EU 내 언어사용이 다양해 질 것으로 전망

영어는 EU가 인정하는 24개의 공식 언어 중 하나이며, 회원국 탈퇴와 상관없이 유일하게 EU 이사회만이 공식어 지정과 삭제 권한을 가진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어는 EU 공식 언어로 계속 사용될 예정이나, EU 내 언어사용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전 EU 회원국 내 영어 사용자(모국어) 인구수가 3위로 집계되었던 반면 브렉시트 이후 영어사용 인구수는 24개 언어 중 17위로 하락할 예정이다. 이는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필두로 EU 내 다양한 언어사용 문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LE SOIR 2020.01.28.)

멕시코

문화를 국가변혁과 사회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오브라도(AMLO) 대통령은 취임 이래 문화의 역할을 해왔다. 그 일환으로 문화를 통한 국가변혁과 사회 통합 및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을 역설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공공시설과 문화공간 활용 극대화 전략으로 대통령 집무실이자 관저인 로스 피노스(Los Pinos)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했다. 문화예술산업 분야 임금지급 문제 해결, 전통공예 분야 육성 등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문화를 동반한 공중보건 인식제고와 예술 분야 조기교육 실시 등을 제안했다.

태국

매년 12인의 국민예술가(National Artist) 선정

태국은 매년 태국 예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12인을 국민예술가(National Artist)로 선정한다. 국민예술가로 선정된 사람은 매달 2만5천 바트의 지원금을 평생 받게 되며, 1년에 최대 10만 바트(약 370만 원)의 의료비 지원, 재난 지원금 5만 바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에는 문학 분야 2명, 드라마틱 아트(태국전통음악 및 무용, 국제음악 및 무용, 영화 및 드라마) 분야 6명, 시각예술 분야에 4명의 예술가가 선정되었다. (출처: 태국문화부 사이트, 2020.02.18.)

2. 문화산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플랫폼 마련에 집중

영국

창의산업(Creative Industry)에 부과하는 세금감면 혜택의 경제적 효과 강조

영국은 창의산업에 부여하는 세금감면 혜택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정책효과를 강조했다. 영국 영화협회(BFI)에 따르면, 1파운드의 세금혜택이 7파운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영국은 현재 8개 분야(영화, 하이엔드, 아동, 애니메이션, 비디오게임, 연극, 오케스트라 공연, 미술관·박물관 전시 등)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프랑스

Lumni, 영상 문화 콘텐츠 제공 온라인 플랫폼 운영

프랑스 문화부는 2019년부터 공영방송사 프랑스 텔레비지옹(France Television) 및 교육부와 협력해, 영상 문화 콘텐츠 시청과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Lumni를 운영하고 이를 공교육 과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본 플랫폼은 교육부의 <이미지, 영화와 시청각자료 교육 정책>¹의 일환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을 주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에서는 영화를 포함한 4천여 건의 문화 콘텐츠와 영상 교육 자료가 초·중·고등학생과 교육기관 관계자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단순히 영상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연계해 교육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문화부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21세기형 '시네-클럽(Cine-club)'²을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하며 포부를 드러냈다.

1 <이미지, 영화와 시청각자료 교육(L'éducation à l'image, au cinéma et à l'audiovisuel)> : 프랑스 교육부가 진행 중인 문화예술 교육 아동과 청소년이 접하기 쉬운 문화 산물 중 하나인 시청각 매체(영화, 사진, 방송, 인터넷 등)를 교육에 접목해 이들이 문화를 배우고 예술 경험을 하며 장래 계발을 할 수 있도록 장려

2 1920년대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 미국에서 결성된 영화 동호인 모임 및 관련 활동을 지칭하며 프랑스에서는 영화비평가 리치오토 카누도(Ricciotto Canudo)와 루이 델뤼크(Louis Delluc)등에 의하여 창시되어, 작가주의, 고전 영화 상영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오늘날 프랑스 영화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벨기에

벨기에 Antwerpen시와 Bist시, 무인 도서관 개관

벨기에 Antwerpen시와 Bist시는 도서관 개관 시간 이외, 도서 대여와 반납이 가능한 무인 도서관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밝혔다. 1년 동안 시범 운영 후 성과가 긍정적인 경우 무인 도서관을 확대해 운영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감시카메라도 설치할 계획이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무인 도서관 제도가 이미 잘 정비되어 있으며, 도서관 개방 시간 이후에도 신문이나 책을 읽으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무인 도서관 제도는 회원제로 관리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도서관 시스템 이용 관련 강좌를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출처: DE STANDAARD 2020.02.24.)

캐나다

연합방송통신 입법검토위원회(BTLRP)³, 캐나다 통신 현대화를 위한 권고 발표

연방 방송 통신 입법 검토 위원회는 캐나다의 방송법, 통신법과 무선통신법을 검토하고, 입법과 규제 현대화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선진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캐나다인의 진입장벽 감소 ▲캐나다 콘텐츠의 생성, 제작과 검색 지원 ▲디지털 소비자의 권리 향상과 디지털 환경에 대한 신뢰 강화 ▲통신 부문의 제도적 구조 갱신 등이 있다.

3 the federal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Legislative Review Panel(BTLRP): 2018년 6월, 캐나다 혁신부, 과학 및 경제개발부, 문화유산부에 의해 만들어진 6인 위원단

아르헨티나

외교부 주도 문학작품 외국어 번역 지원 프로그램 운영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국가 간의 문화적 교류와 주재국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문학작품 외국어 번역 지원 프로그램인 '프로그라마 수르(Programa Sur)'를 2009년부터 운영 중이다. 장르를 불문하고, 해외출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혜 대상으로 선정된다. 해당 사업의 보조금 예산은 연 15만 달러로 책정되어있다. 출판사별 지원 한도는 3천2백달러(번역료)로 문학작품에 대한 저작권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국가별 프로그라마 수르를 통해 번역된 작품 수(2009-2020)⁴

1	이탈리아 194권	11	마케도니아 28권
2	프랑스 118권	12	루마니아 22권
3	독일 96권	13	이집트 22권
4	브라질 62권	14	스위스 21권
5	불가리아 50권	15	네덜란드 21권
6	미국 48권	16	포르투갈 17권
7	체코 39권	17	세르비아 17권
8	영국 32권	18	우크라이나 15권
9	그리스 29권	19	스웨덴 14권
10	이스라엘 29권	이외	대한민국 3권

4 49개 언어, 51개국, 총 1,472개 작품

3. 문화재

폴란드

그단스크(Gdańsk) 조선소, 세계유산 등재 신청

폴란드 문화부는 폴란드 북부 '그단스크(Gdańsk) 조선소'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2020.01.31.). 동 신청서는 그단스크 조선소가 세계사의 주요 사건들을 목격하며 민주적인 유럽의 통일을 이끌어 왔고, 폴란드 자유노조연대 '솔리다르노시치(Solidarność)'의 탄생지이자 '철의 장막' 붕괴의 상징으로 세계사와 인류의 공동유산에 매우 중요한 곳이라 설명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 Sites) 전문가들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첫 번째 심사 단계를 진행 중이다.

터키

해외로 반출되었던 역사 유물 2점, 터키로 반환

영국으로 반출되었던 기원전 3000~2000년경의 아나톨리아 유물인 두 마리의 황소가 끄는 수레 동상과 세 조각의 시다마라(Sidamara)양식의 석관이 터키 문광부의 노력으로 터키로 돌아왔다. 터키 문광부 장관은 이 유물들이 앙카라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에 전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Sozcu 신문, 2020.02.15.)

4. 체육

터키

어린이 체육 능력 측정을 통한 올림픽 인재 육성

청소년 체육부 장관 무하렘 카사프오올루는 ‘체육 능력 측정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1년간 어린이 120만명의 체육 능력을 측정하였고, 이 중 약 11만 명의 재능 있는 어린이를 선발하여 올림픽 인재로 육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선발된 어린이들은 기초 운동과 스포츠 능력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올림픽 준비 센터와 선수 교육 센터에서 대회, 토너먼트, 선수권 대회와 올림픽을 위한 인재로 육성된다. (출처: Hurriyet 신문, 2020.02.25.)

벨기에

소년원과 교도소 내 스포츠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왈로니아·브뤼셀 지방정부 체육부는 2020년 동 지역 소년원과 교도소 내 청소년(14~18세) 수감자 체육 활동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스포츠가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건전한 정신을 위해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데 주목해 한 해 동안 18개 교도소 내 체육 교육 활동 지원 사업이 운영된다. 기획서 접수와 심사를 통해 총 4만 유로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며, 예산은 인건비, 교통비, 체육 활동 지도를 위한 직접 비용을 위해서만 활용 가능하다. 기타 필요물품은 지방정부 스포츠 센터에서 대여할 수 있다. (출처: www.sport-adepts.be | 왈로니아·브뤼셀 지방정부 공식 홈페이지)

태국

스포츠 관련 홍보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태국관광체육부 장관과 총리실 장관이 공동 의장으로 참석하여 국영방송(MCOT), 홍보부(PRD) 그리고 체육청(SAT) 간, 스포츠 관련 홍보 증진을 위한 MOU 체결에 서명했다. 태국관광체육부는 이 세 곳과 협력해 스포츠 관련 콘텐츠 미디어를 제작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홍보할 계획이며, 스포츠 관련 학술과 기술 증진, 방송과 SNS 콘텐츠 활성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출처: 태국관광체육부 사이트, 2020.02.13.)

5. 관광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관광산업 정책 추진

호주

관광산업 복구를 위한 관광 진흥 마케팅 예금 편성 예정

호주는 산불과 코로나19 피해로 2월 해외관광객 예약이 56%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에 최대 피해를 보았다. 이에 연방 관광장관 사이먼 버닝 햄은 사상 최대로 1억5천4백만 달러(약 1천2백억 원)의 관광 마케팅 예금을 편성해 관광지로서 호주의 이미지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Hurriyet 신문, 2020.02.25.)

싱가포르

싱가포르 관광청, SG Quality Mark 도입

싱가포르 관광청은 3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싱가포르 중소기업청(Enterprise Singapore)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위생과 청결함을 높이기 위해 SG Clean Quality 마크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SG Clean은 당초 환경청(NEA)과 식품청(SFA) 주도로, 외식업계와 숙박업계 등의 청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캠페인으로 출범했으나,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심대한 타격을 받으면서 SG Clean Quality 마크는 관광업계 지원책 중 하나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대규모 환자가 발생한 Grand Hyatt 호텔과 싱가포르 최초의 환자가 발생한 샹그릴라 Rasa Sentosa Resort & SPA는 숙박업소 중 최초로 SG Quality Mark를 획득하며 호텔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출처: Enterprise Singapore, 2020.03.12.)

프랑스

코로나19 관련 관광 산업 구제 긴급대책반 구성

프랑스 재무부 장관 브뤼노 르메르(Bruno LeMaire)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프랑스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30~40% 이상, 관련 수익은 20% 이상(약 60억 유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프랑스 관광청은 재무부와 파리지외의 협의를 통해 피해를 입은 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대책반을 구성하고 이하 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처: Enterprise Singapore, 2020.03.12.)

- 피해 업체 감세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은행 대출 지원과 정부 보증 시스템 지원, 행사 취소 관련 보험처리 등의 행정절차 지원, 피해 업체 인력비 일부 지원, 소비자 및 납품업체 등과의 분쟁 조정 지원, 온/오프라인 핫라인 개설을 통한 사업체의 지원 관련 문의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문화 도시(European Capitals of Culture)로 선정

유럽연합 문화 도시 프로그램은 EU 문화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로, 1985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선정과정은 지정연도 6년 전부터 유럽 내 전 지역 도시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가들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거치며 선정 도시에는 EU Creative Europe 예산 중 150만 유로를 Melina Mercouri Prize라는 이름으로 지원한다. 선정 도시 운영 이후 EU 집행위와 선정 도시 간 공동 결과연구를 통해 향후 해당 사업 발전방향을 설정한다. EU 문화 도시는 지정 도시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을 지원하는 문화기반 구축 사업을 실행하고, 유럽이 가진 공통의 문화적 토대를 바탕으로 유럽인의 문화적 소양을 강화하며, 유럽 내 다양한 문화 콘텐츠 공유와 교류를 통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출처: EU 공식 홈페이지 2020.01.11.)

여행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전략

브뤼셀은 유럽 연합(EU) 본부가 위치한 행정도시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전략적 도시 이미지 관리 사업을 통해 여행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왔다. 이를 위해 인기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과 활발히 협력해 많은 젊은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기존의 전통적 홍보 방식과 비교해 비용 대비 훨씬 큰 효과 거두었다. 특히, 에어비엔비, 호텔 예약 플랫폼 등 다양한 여행 관련 플랫폼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향해 지역주민의 주택과 숙박업소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관리했다. 이는 주위 바르셀로나나 암스테르담이 관광지화 되면서 지역주민의 공간이 사라지거나 숙박비가 과도하게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며 관광 도시로서의 성장을 지향하지만 부작용은 최소한으로 줄인 신중한 관광 추진 정책으로 평가된다. (출처: La Libre Belgique 2020.01.11.)